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NOVEMBER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63



Catskill 단풍 관광: 가을의 정취와 회원들의 따뜻한 우애

지난 10월 16일 목요일, 골든클럽 회원 41명이 49인승 대형 버스를 대절하여 Catskill의 명소인 North and South Lake shore와 Kaaterskill Falls 단풍 관광을 성공적으로 다녀왔습니다.

호수가 단풍놀이와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여행 당일, 다소 낮은 기온과 호수 주변으로 불어오는 강풍 때문에 준비해 간 도시락을 야외에서 차분히 즐기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일부는 버스 속에서, 일부는 벤치에 앉아 식사를 해결해야 했으며, "단풍보다는 바람을 더 많이 보았다"며 유쾌한 푸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들의 따뜻한 정이 빛났습니다. 흥종만 전회장 내외가 준비해 온 버너로 동글레차와 커피를 끓여주셔서, 회원들은 호호 불어가며 따뜻한 차로 속을 달래며 가을의 정취를 나누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훈훈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Kaaterskill Falls의 웅장한 폭포와 가을 풍경 다음으로 이동한 Kaaterskill Falls 주변은 다행히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일행은 편안하게 폭포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폭포 위쪽 관람대로 이동하여, 2단으로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와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이 어우러진 장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몇몇 회원들은 용기를 내어 폭포 하단으로 이어진 급한 경사의 계단을 따라 내려가, 내리쬐는 물줄기와 웅장한 물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두 번째 Day Trip

이번 버스 관광은 지난 7월 31일 Longwood Garden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골프를 즐기지 않는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획된 이번 여행은 회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관광을 통해 회원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 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내년에도 이와 같은 즐거운 'Day Trip'을 두 차례 정도 더 계획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골든클럽은 앞으로도 모든 회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 송년회 및 장학금 수여식



단풍관광: 점심 준비



단풍관광: 전망대에서 다함께

친애하는 뉴욕 동문 여러분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울대학교 뉴욕 동창회 송년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끈끈한 동문애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이번 송년회는 특히 젊은 동문들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하니, 주위의 젊은 동문들에게도 많은 홍보와 참석을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풍관광: 폭포전망대 앞

행사 개요

일시: 2025년 12월 6일 (토) 오후 4시 ~ 7시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Grand Ballroom)

참가비: \$120

주요 프로그램시간순서내용

- 1부 공식 행사감사 선임 및 차기 임원 소개,
장학금 수여식,
기념 촬영
- 2부 축하 공연동문 음대 출신들의 특별 축하 음악회
- 3부 여흥 및 경품
즐거운 여흥 시간 및 다양한 상품이 걸린 경품 추첨



단풍관광: 폭포 전망대 앞에서

동문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번 송년회는 동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자, 학업에 정진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장학금 수여식을 겸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동문 음대 출신들의 수준 높은 축하 공연과 함께, 여흥 시간에는 푸짐한 경품을 준비하여 한 해의 좋은 마무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연말 추억을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및 문의사항: 김병순 뉴욕동창회장

(703)407-4928 kbs8717@gmail.com



골프대회: 이진환 홍예경 김창수 김병순



골프대회: 권정덕 이상원 김광현 박기환



골프대회: 한윤미 문성희 문선 홍선경



골프대회: 이대영 박희병 김정필 유규환



이준행 명예회장 근황

성기로 (약대57) 회원 부부와 계동회(치대67) 회원 부부가 10월 13일 이준행 명예회장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회장님의 건강은 아주 좋으시며 음식도 잘 잡수시며 골든클럽 회원들의 안부를 부탁하셨습니다.



부다페스트 마라투어,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

■ 김정필 (공대71)

10월 CT 하트포트 마라톤을 준비하던 중, 아내가 마침 같은 기간에 시간이 난다며 헝가리 부다페스트 마라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여름휴가를 건너뛴 대신, 함께 달리며 여행의 기쁨을 나누자는 달콤한 제안에 흔쾌히 응하며, 이번 기회에 아내에게도 10km 레이스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아내는 몇 주 동안 나름대로 주 2회씩 연습에 임했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껴 '1마일 달리기 후 1분 걷기' 방식의 전략을 세워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아름다운 다뉴브 강을 끼고 돌며 시내를 잠시씩 통과하는 경로였습니다. 훌륭한 경치와 더불어 완벽했던 날씨, 그리고 깔끔한 대회 운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내와 함께 10km 레이스에 참가했습니다. 아내는 사전에 세운 전략대로 '걷뛰'를 반복하며 1시간 17분이라는 멋진 기록으로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오후 휴식 후 일요일 오전에는 제가 풀코스 도전했습니다. 목표는 4시간 30분이었으나, 18마일(약 29km) 지점 이후 찾아온 극심한 다리 경련(쥐) 때문에 속도를 현저히 늦춰야 했습니다. 장거리 훈련 부족과 전해질 관리 실패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결국 4시간 56분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도전할 곳이 어디인가를 구글링 하면서 행복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2025년 10월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

10월 23일 Split Rock Golf Club에서 27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가졌다. 최근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참가비를 120불에서 150불로 인상한 가운데 많은 동문들이 협조하여 잘 진행되었으며 여전히 대회 자체적으로 적자는 보였지만 적자폭이 대폭 감소되었다. 날씨는 덤지도 않고 그저 쌀쌀한 정도이어서 골프를 즐기기에 완벽하였다. 라운딩 이후에 모임 장소로 이전구 위원장님이 걱정하여 여러 방법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노력하였으나 골프장측에서 당초 지정한 장소를 고집하여 예정대로 행하여 졌으나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였다. 이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창회 젊은 임원들 2명은 골프 라운딩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도와준 덕택에 아름다운 행사로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모임은 동창회 임원들(이진환, 이창길, 박수형, 한윤미)를 소개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이 깊었다.

지난번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광현 동문이 본인 그림을 상품으로 희사하여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여 상품으로서의 역할에서 기금모금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확대되어 풍성한 모금행사가 되었다.

골프 라운딩을 즐기면서 장학기금에 기부하는 동문들이 많이 있었고 골프대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기부금을 희사하신 동문들도 많이 있어 장학금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 풍족히 채워지는 행사가 되었다.



골프대회 입상자: 이대영 김경필 박기환 강에드



그림을 희사한 김광현 동문(왼쪽3번째)와 그림을 경매구입한 한윤미

소소한 이야기들 (무제)

■ 문선 (최한용 가족)

완강한 거절표현이 부족하다보니 얼떨결에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저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풀어보며 어쨌든 미리 감사드립니다. 서로 기대어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골든클럽', 참된 인간관계가 꽃피우는 명품클럽이길 바램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온다면...

가을맞이 단풍관광 코스에 호수와 폭포가 나이가가라 혹은 이과수 폭포를 연상한건 아니나 그래도 모처럼 폭포를 배경으로 몇장 찍어왔다.

먼 발치라 그런가 아뿔사 폭포는 온데간데 없었다. 고민도 잠시 열린 확대해 보니 역시 가늘지만 멋지게 폭포가 살아나 안도하였다. 버스 안에서 도시락 먹으려면 여기까지 왜왔소! 주류 책임자(?) S 선배님 훈시말씀은 참으로 지당했다. 하지만 춥고 너무도 쎄 바람에 등 떠밀려 어쩔수 없었다는 변명아닌 변명! 대자연을 즐기며 먹었다면 금상첨화 였겠지만 그래도 꿀맛이었죠. 손에 손잡고 그저 웃음꽃 피우는 날!

돌이켜보면, 철없기 그지없던 불혹의 나이를 지나 지천명의 나이에 하늘의 뜻을 알기는 커녕 이순의 나이에도 삶과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고회를 넘겨 중반에 들어서며 점차 삶에 고개숙인다.

웰 에이징(well aging)이란 아름답게,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일진대 아울러 행복하게 늙어가야지요.

나처럼 내성향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안으로 삭이다보니 암도 걸리게 되고 얼굴에서 웃음꽃이 사라짐을 봅니다.

행복하려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야겠다고 웃음 운동법이란 책도 구매하며 나름 노력.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먼저 웃어야 따라 웃어요. 억지로라도 웃다보면 억지가 진짜가 된대네요.

웃음에는 포복절도(배를 안고 넘어질 정도로 몹시 웃음)부터 요절복통(하도 우스워 허리가 꺾이고 배가 아플지경), 파안대소(함박웃음), 박장대소(배와 온몸을 움직이며 웃는 것)등 여러가지이나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문만복래,한 번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화를 내면 늙는 일소일소 일노일노를 기억하며 웃음꽃 피우는 나날로 살아갑시다.

수퍼시니어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한가지

배우자도 형제도 자식도 아무도 원치 않아요. 내 죽거든 남긴 유품들 말이지. 그래서 진즉부터 차근차근 죽음을 준비합니다.

미니멀리즘이란 정말 좋아하는 것과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만 남기는 삶의 태도이죠. 정말 소중한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진 삶으로, 서서히 일상 속 탈바꿈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썼던 산문시로 마무리합니다.

-집콕하면서-

코로나 격리로 인한 집콕의 이득이랄까?

업무 만나던 두께의 책

시간의 쫓김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읽어낸 책도 그렇고

들여다 보며 큰숨 내뿜던 빼곡한 옷장

이참에 후련하게 속아낸 것도 그렇다

신고 갈 곳도 없는데 연륜에 비례해 늘어난 신발들

또한 과감히 줄이고 난후 맛보는 만족감

생각만 하고 미루던 잡다한 집안일 해결하며

솔솔한 행복감에 젖는다

오늘은 종일 별러오던 냉장고 대청소다

마치 큰업적을 이룬 기분

말라버린 정체모를 소스 흔적

저 여기 있어요! 구석에서 아우성치는

시들고 상해가는 식재료들의 소리없는 외침

못들은 척 외면하며 피곤하니 나중에, 귀찮아서 나중에...

마치 나를 들여다 보는 듯한 냉장고 내부

내 삶이 어른대는 알 수 없음을 뒤로하고

묵묵히 더 깨끗이 닦아내었다



격동의 시대를 넘어선 도전과 성취 이강홍 회장(상대60)의 '아메리칸 드림'

아주 어린시절이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에 모친과 함께 부친을 만나기 위하여 모친과 함께 만주까지 여행한 것은 기억이 생생하다. 625 한국동란 시절에는 서울에서 북한 공산 치하에서 끔찍한 경험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형을 잃은 사건 등의 참담한 경험담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고 하고 북한군 내무서원과 토착빨갱이로 부터 부친이 심한 고초를 당하여 거의 폐인이 되어 요양하느라 국민학교의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하였다가 서울로 복귀 후 6학년으로 편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학교 공부를 따라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

403달러의 꿈을 찾아: 미국 유학과 해운회사 입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진학 후 졸업하면서 미국에 Stanford 대학교로의 유학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할 403달러가 없어 난관에 봉착하였다.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형님이 집안을 이끌어 가고 있었고 비행기표 비용을 형님에게 부탁하는 말을 할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 나의 힘으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Time지와 Readers Digest를 통하여 독학으로 터득한 영어 실력으로 미국대사관 참사관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분을 통하여 당시 월남전 참전한 미군 병사들을 본국으로 운반하는 비행기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당시 일본은 한국인이 가기는 더욱 힘들어 특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였다.

일본으로 배를 타고 다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운회사를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해외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보자는 심산으로 극동해운에 들어 가게 된다. 당시에 서울 대학교에서는 지원자가 적었고 연대/고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 가는 상황이었으나 내가 지원하였을 때는 1명을 채용하는 경우였는데 Maryland 대학교 청강생으로의 경험 등에 힘입어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다.

29세 최연소 전무: 극동해운과 샘소나이트 신화

극동해운의 소유주였던 남궁연 사장님은 자유당 시절 한국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해운뿐 아니라 철강업에도 종사하였고 조선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내에 있는 철강부문으로 사업상 시너지를 몰고와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심지어 미국 알래스카 파이프 라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비록 실패하였지만 스케일이 큰 사업을 하던 기업가였다. 극동해운에서 남궁연 사장님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 유력인사 로비 및 외국의 사절이나 유명 기업인들의 접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금지 구역이던 비원을 구경 시켜 주는 청와대의 일까지 하는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남궁연 사장의 신망을 크게 얻어 29세에 전무 직함을 얻을 수 있었다.

미국의 Samsonite에서 동양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Licensee Manufacturer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얻고 과감히 여태까지 누리고 있던 여러가지 혜택과 지위를 내려 놓고 그 일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샘소나이트 현지 공장을 서울에서 시작하여 스리랑카, 아일랜드 로 확대하여 건설하였는데 그 모든 공장을 지어 영업을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불철주야로 일하였고 나중에는 일년에 절반 정도를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스리랑카 지사를 건설하였을 때에는 보안 등 여러가지 이슈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에 살면서 토속 말레이 계통의 국왕의 존재와 인도계의 대통령의 존재 및 이광요 수상의 지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가족을 위한 도전:

맨해튼 우즈 골프 클럽(Manhattan Woods Golf Club)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던 시기의 한 날에 작은 아들의 한마디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을 하고 있던 제조업을 그만 두고 가족들과 함께 살려는 계획으로 미국에 터전을 잡을 수 있는 미국 골프장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Gary Player와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전세계 430여개의 골프장을 설계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중심금융도시인 뉴욕 인근에는 본인의 작품이 없어 크게 아쉬워 하던 터이어서 쉽게 인연을 맺을 수 있어 다소 쉽게 그의 Design하

락을 받을 수 있었고 Manhattan Woods Golf Club을 건축할 수 있었다. 1994년부터 대지 매입, 골프장 인허가(영방정부, 주정부, County, 지방정부 등 16개 정부 부처의 인허가가 필요) 등을 거쳐 1998년 9월 22일 Grand Opening을 할 수 있었다. 인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한국과 달리 뇌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금전적인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골프장 운영은 아주 노력이 많이 필요하였다. 로고를 Design하는데 5개월이 소요되고 식당의 Menu를 만드는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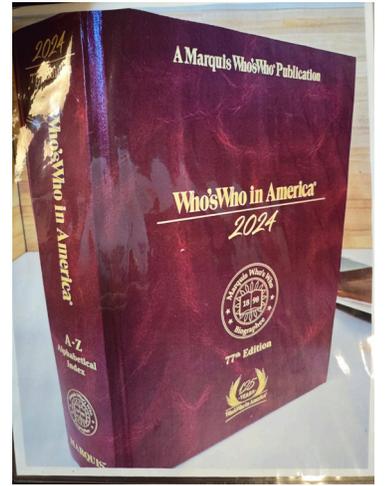


정에도 커피를 어떻게 혼합 제조하는 것이 좋을 지 등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쏟는 과정에는 설계자인 Gary Playe가 자기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에 양보한 덕을 잊지 못한다. 22년 동안 골프장 운영을 한 이후 두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였으나 그 들이 마다하여 2020년에 제 3자들에게 매각하고 현재는 Founder로써 평생 회원권만 보유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다.

건축과 명예: 삶의 궤적을 담은 공간들

나는 집을 직접 지어 보는 것을 좋아하여 여유돈이 조금 생기면 여러가지의 원천을 통하여 영감을 얻어 다양한 형태의 집을 지어 보았다. 한국에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나의 집은 건축가 김중업씨의 작품인데 독특하여 유명한 건축물이었다. 김중업씨는 프랑스의 샤를 르 드골 공항을 설계한 Le Corbusier(르 꼬르비지어)의 제자였는데 한국적인 색채를 담아 가벽돌로 건축하여 건축학도들에게도 유명하였고 대우자동차에서 신차가 나왔을 때 그 집을 배경으로 선전 화보를 찍었고 내가 매각한 이후 외국의 유명 회사의 한국지점장들이 살게 되기도 하였다.

때 통금시간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아내가 보고 싶어 청와대의 힘을 빌어 만난 일화가 생각이 난다. 차편이 이미 종료된 시각에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짓 구실로 청와대 앞에서 비상시 대기하고 있던 군용 쥘차를 타고 처가집에 가서 나의 아내를 만나고 처남방에서 자고 오는 해프닝을 일으켰다. 처가집에 있던 시원치 않은 개와 우리 진돗개를 바꾸어 주어 처남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아내와의 연애와 결혼이 원활히 행하여 지게 되었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내가 영위하던 골프장 사업을 물려 받기를 거부하고 각자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두 명 모두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큰 아들은 부동산업에 작은 아들은 Smart Farming에 종사하고 있다.

[정리: 김병순(사회82)]



샘소나이트 한국 지사의 근로자 기숙사 건물도 그 당시 신식으로 근로자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 지은 건물로 박정희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Manhattan Woods Golf Club의 바로 옆에 대저택을 지었다가 Sotheby 경매장을 통하여 매각이 되는 등 유명한 건축물을 지어 본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되었다. 성수동에 샘소나이트 본사 건물을 지을 때

영국에서 공수하여 온 시계탑은 신혼부부들의 Photo Spot으로 활용되고 있다.

Who's Who in the World에 이명박 전대통령과 나란히 나의 이름이 나오고 Who's Who In America에 나의 탄생에서 여러 사업상 이력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한다.

해병대 정신과 가족 사랑

군대는 해병대를 제대하였는데 회사를 운영할 때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노고를 기억하여 위문품을 매년 보냈는데 한국군대 중 가장 외진 곳으로 고생이 많은 27사단을 선택하였다. 나의 아내는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였는데 내가 한 때는 미대를 가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꿈이 있어 장충공원에서 하는 미술 Class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만났다. 연애를 할



27사단 위문품 전달

회원 명단 (113명 / 2025-10-25)

강교숙	김상만	박상원	오순문	이대영	정해민	허용웅 허유선 홍정표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박준구	오용호	이영범	조상선	
계동휘	김영덕	박희병	오인석	이용대	주재양	
고애자	김영만	배상규	우규환	이위곤	진봉일	
곽선섭	김우영	성기로	유무영	이전구	천병수	
권문웅	김익성	손갑수	육재희	이종대	천종화	
권정덕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종석	최병우	
홍선경	김창수	손대홍	윤상영	이준행	최순채	
권태전	김충정	남종현	윤재욱	이흥빈	최진희	
금영천	김치갑	손우화	윤종숙	임도혁	최한용	
김광수	김태일	송근숙	윤현남	임호순	최학주	
김광현	김한중	송웅길	이강홍	전문준	한민우	
김동건	김현중	송현자	이민제	정도현	한영오	
김문경	노승만	송학린	이상무	정수일	한용희	
김문언	노용면	송혜순	이상준	조달훈	홍정표	
김병순	문 선	신두식	이승준	조승자	홍예경	
	민준기	신진식	이 준	정준영		
	박기환	신응남	이대연			

2025년 연회비 납부 명단 86명 / \$8600 / 2025-10-25

강교숙	김상만	박희병	이상원	이상무	정수일	한민우 한용오 한태진 안용희 허용웅 홍정표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배상규	이행순	이승준	정준영	
계동휘	김영만	성기로	오순문	이영범	정해민	
곽선섭	김우영	손갑수	오용호	이용대	조달훈	
권문웅	김익성	손경택	오인석	이위곤	조상근	
권정덕	김정필	송근숙	우규환	이전구	주상선	
홍선경	김충정	송웅길	육재희	이종대	천병수	
권태전	김한중	송현자	윤상영	이종석	천종화	
금영천	김현중	송학린	윤선구	이흥빈	최병우	
김광현	문 선	송혜순	윤현남	이행순	최순채	
김광경	민준기	신두식	이대연	임도혁	최진희	
김문언	박기환	신응남	이대영	임호순	최한용	
김병순	박준구	신진식	이강홍	전문준		

2025년 후원금 기부 명단 (30명 / \$14,000 2025-10-25)

강에드 300	배상규 200	이강홍 500	이종대 200	한태진 500
계동휘 300	성기로 500	이상원 100	이행순 200	홍정표 1000
권정덕 500	손경택 1500	이영범 300	임호순 300	
금영천 100	송혜순 200	이용대 300	전문준 500	
김상만 300	신진식 300	이위곤 100	정해민 2500	
김육수 200	오용호 300	이행순 300	최준희 300	
김한중 300	윤현남 400	이전구 1000	최한용 500	

2025년 입회비 납부 명단

전문준	육재희
정준영	문 선

발전기금 기부명단 (2020~)

이준행 4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화번호:

Email:

주소 (Home):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5-10-25)

3월	13(목)	하이킹 (취소)
	22(토)	신년교례회 (82명 참가)
4월	10(목)	하이킹 (6명참가)
	24(목)	골프대회 - Sunset Valley (28명참가)
5월	22(목)	뉴욕동창회골프대회 - Pelham
	29(목)	Metropolitan Museum 방문
6월	12(목)	Family Picnic (Alpine Pavillion)
	26(목)	골프대회 - Walkil Golf Club (취소)
7월	24(목)	골프대회 - Hundson Hills (32명 참석)
	31(목)	Longwood Garden 방문 (36명 참석)
8월	21(목)	골프대회 - Walkill Golf Club (22명 참석)
9월	25(목)	골프대회 - Meadows Golf Club (우천으로 취소)
10월	16(목)	단풍관광 (41명 참석)
	23(목)	뉴욕동창회 골프대회 (29명 참석)
12월	6(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7-13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1일(토)	2026년 신년교례회

1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계동휘 (치대67)
- 김동건 (사대67)
- 민준기 (공대59)
- 박희병 (치대63)
- 송근숙 (간호66)
- 윤종숙 (약대66)
- 이준 (간호58)
- 천종화 (가족)
- 최학주 (공대60)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